

새로운 약의 발견

이윤수 명동 이윤수비뇨기과병원 원장

현대에 들어와서 질병이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도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세계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신약이 개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신약이란 기존에 없었던 진짜 새로운 약일 수도 있고 기존의 약을 적절히 변형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약물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은 것은 과거로부터 전래되어 오던 민간처방이나 나무나 풀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이다. 지금도 일부 약들은 민간에서 사용하던 것을 보고 찾아내기도 한다. 아편으로 유명한 양귀비는 옛날부터 농가나 집에서 진통제나 배앓이를 할 때 귀하게 쓰였던 꽃나무이다. 요즈음 남용으로 인한 마약중독의 우려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농가에서 조차 재배 및 그 사용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에서 추출된 약물들은 지금도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다.

술의 경우는 취하려고 마시기도 하고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술은 마시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신적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사용되었다. 진통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제로, 더러운 상처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으로 쓰였다.

자연으로부터 관찰에 의해 새롭게 얻기도 한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실험실에서 곰팡이에 의해 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최근에는 화학이나 유전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체내의 대사물질을 직접 외부에서 만들어내었으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종 호르몬이 그것으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거나 동물의 호르몬 등을 추출하여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한다.

발기유발제로 요즈음 각광을 받는 파파베린은 외과의사가 수술 도중 우연히 발기를 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단지 혈관 확장 목적으로 사용되던 약물이었다. 그러나 수술을 하던 도중에 엉뚱하게 환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죽지 않는 것이었다. 그 이후 발기유발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약물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금세기 최대 하이라이프는 아마도 비아그라가 아닌가 한다. 새로운 약이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발기유발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비아그라가 발견된 것은 우연이었다. 영국 샌드위치 연구소에서 심장약으로 개발된 것으로 임상실험 도중에 발기를 유발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래 개발 목적하였던 바에

의하면 비아그라는 실패한 약이다. 처음에는 심장약으로 개발되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시알리스라고 하여 기존의 약보다 복용 후 나타나는 발현시간이 빠르며 발기효과가 3일간 유효하다고 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아제약에서 개발된 약이 현재 임상실험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발기유발 약물들이 사용상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이 주작용으로 바뀌다보니 발기약으로 사용도중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일부 심장질환이 있거나 특수 약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할 때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사용을 한다면 위험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전담의사를 정해 놓고 진찰한 후에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위험을 초래한다면 독약과 다름이 없다. 물론 이런 약물이 듣지 않거나 위험한 사람들은 수술로서 젊어서와 같은 위력적인 성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수술이라는 단점에 비해 얻는 효과가 크며 발기부전 환자의 마지막 보루이다. 자신이나 혹은 상대가 원할 때 언제든 즉시 성관계가 가능하다. 의학이 발전하며 젊음을 되찾는 약물이 개발될 때까지는 수술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이다. **77**

